

# 후보 이력서

	성명	한글	오흥운	서명		성별	남
		한자	吳興雲	영문	Oh, Heungun		
		생년월일	1964.06.17		작성일	2020.11.24	
직장명	경기대학교		부서명	도시교통공학과	직위	교수	
학 력	기 간	학교, 학과 및 전공				학위	
	1997.1 ~ 2000.5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통공학전공				박사졸업	
	1983.3 ~ 1987.2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학사				학사졸업	
주 요 경 력	기 간	직장, 부서 및 직위					
	2009~현재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2019~현재	한국도로학회 홍보부회장					
	2017~2019	한국도로학회 감사					
	2015~2017	한국도로학회 총무(재무)이사					
	2013~2015	한국도로학회 총무이사					
	2011~2013	한국도로학회 논문편집위원장					
	2005~2009	한국도로학회 학회지편집위원, 도로설계분과위원, 교통안전분과위원					
	2017~ 2019	대한교통학회 행정부회장					
	1991~2009	한국도로공사 (건설2처, 도로처(시설개발부), 신사업단, 조사처, 도로교통연구원)					
	1997~ 현재	국제도로연맹 (IRF)회원, REAAA (동아시아도로연맹)한국지부 이사					
	2014~ 2018	한국도로기술사회 이사					
2020~ 현재	한국도로시설안전협회 이사						
자 격 · 포 상	년 월 일	종 류			시행/발행처		
	2017.03.14	논문상			한국도로학회		
	2013.03.08	학술상			한국도로학회		
	2011.07.07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국토해양부		
	2004.07.07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건설교통부		
	2006.09.11	(자격)도로 및 공항기술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986.12.01	(자격) 토목기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주요 연구업적 요약

학위 논문	논문						기타				합계	비고	
	정기 학술지 논문			학술발표 논문			소계	저서	특허 (출원)	연구 보고 서			소계
	국제	국내	기타	국제	국내								
5	12	40		11	10	78	3		35	38	116		

# 학회 운영 계획서



후 보 성 명	소 속
오흥운	경기대학교

## 후보의 회상

저는 '91년부터 30년에 걸쳐 한국도로공사의 건설2처, 도로처, 조사처, 도로교통연구원에서 근무를 하였고 현재 경기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로분야를 조금씩 이나마 넓게 포괄한 경험을 했습니다. 도로 및 공항기술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 회원, 대의원, 위원, 임원, 회장들의 헌신을 본받아 학회에 기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05년부터 학회지 편집위원, 논문집 편집위원장, 재무이사, 총무이사, 감사, 홍보부회장의 기여를 했습니다.

저는 논문편집위원장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우리학회 논문집이 세계적으로 읽혀지도록 표준화하여 준비하였습니다. International Journal로 명칭을 개선하였습니다. 여백 및 글자체, 영문캡션, 영문요약의 논리적 체계(Purposes, Methods, Results, Conclusions), 영문 참고문헌의 체계를 정하였습니다. 도로시설과 교통시설체계로 분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논문집 발행을 년 4회에서 6회로 더 늘렸습니다. 게재편수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우리학회의 연관 해외저널인 Journal of Traffic and Transportation Engineering (JTTE)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협력하였습니다.

저는 총무이사로서 4년의 시간을 기여하였습니다. 행정체계를 굳건히 하는 책무를 담당했습니다. 수서로 우리학회사무실을 이전하고 매각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학회장 제도 및 선거제도(대의원 확대등)를 개선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회계상 복잡하였던 연구비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업무 방침을 수립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월단위로 보직이사회를 신설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임시 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당대 회장님은 연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저는 일조하였습니다.

저는 감사로서 기여하였습니다. 당해년도에 회계상 업적이 많으셨던 회장단을 도와서 학회 매년 결산자료가 세무회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도록 공식화 하였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홍보부회장으로서 기여하였습니다. 회장단과 홍보이사, 사무국직원분들을 도와서 ①모바일기기에 적합하도록 ②게시판이 특화되도록 현재의 학회 홈페이지를 개선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도로 분야 홍보 및 우리학회의 홍보를 위해 모바일(홍보)위원회를 신설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모바일(홍보)위원회가 발전해감에 따라 향후 ① (홈페이지 추가 개선 예정인) 홈페이지소위원회, ② (도로 소식의 집약성을 강화할) 뉴스레터 소위원회, ③ (유튜브 거점 활동을 시작할) UCC 소위원회, ④ (우리학회 홍보를 총괄할) 홍보소위원회, ⑤ (청년 회원 홍보를 총괄할) 청년 홍보소위원회를 신설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현재 소위원회 위원장님들이 활동이 많아서 고맙습니다.

## 후보의 학회운영계획

저는 우리학회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업적을 계승하고 좋은 것을 우리학회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학회들의 발전 양상은 양극화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학회는 상승 발전해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학회가 시대에 발 맞춰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대적 트렌드인 “Omni-Layered”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Omni-Layered 한국도로학회”란 우리학회의 활동에 세 가지 영역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① basic에 충실함, ② 역량을 추가함, ③ 외부와 연결함이 그 세 가지입니다.

우리학회에는 잘 유지해야만 하는 basic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장점을 잘 계승하는 것입니다. 우리학회는 도로 설계, 운영, 시설설치 및 관리체계, 포장 및 블록분야에서 탄탄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학회는 개방성이라는 잠재역량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의 부산에서 열린 학술발표회는 우리학회의 기본역량과 잠재역량을 잘 표현했던 예입니다. 우리나라 학회들에서는 희소한 장점입니다. 흐트러짐 없도록 잘 계승하겠습니다.

우리학회에 “역량을 추가”하는 것은 우리학회에서 여러 전문 능력을 더해 시너지 한다는 의미입니다. 도로분야는 스마트 및 도로교통 체계 부분에서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는 도로문화, 도로계획 및 체계분야, 민자도로분야, 스마트도로 분야, 도로(포장)재료 시험분야, 안전 시설물분야, 도로(포장)유지관리 재료 및 시설 분야, 친환경도로 및 신소재 분야, 자율주행분야, ITS, 커넥티드 분야의 발전은 눈부실 정도입니다. 저는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학회에서 자리 잡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외부와 연결함은 코로나 시대 이후에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학회의 각종위원회 활동 및 세미나등 소통활동, 홍보활동, 방송활동의 활성화가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활성화”는 향후에도 우리학회의 최고 추진분야가 틀림없습니다. 위원장이 회장의 권한을 더 위임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장은 예산과 행정의 권한만을 가지고 나머지 권한은 위원회 위원장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학회에는 더 많은 지회도 필요합니다. 지역이나 회사별로 지회를 활성화 하는 방법도 강구할 때입니다. 외부와 연결을 위해 홍보, 방송활동은 필수 활동인 것 같습니다. 우리학회에 유튜브방송국 설립을 검토할 시기입니다. 우리학회의 유튜브 채널에 수백 개의 콘텐츠를 보유하도록 하고, 우리학회의 온라인 게시판에 접속자가 많도록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학회 세미나에 신문기자들이 궁금해서 찾아오게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학회 회원사가 YTN 사이언스등 방송에서 주인공으로 나와야 할 때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Homo ROAD Sapiens를 우리 스스로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Homo Sapiens는 지혜로운(Sapiens), 사람(Homo)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저자인 “유발하라리”는 인간의 능력의 최고는 “상상력”이라 했습니다.

도로(Road)에 대해 상상력이 넘치는 (Sapiens), 사람(Homo)이 우리학회에서 발굴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학회와 도로분야에 대한 지혜가 널리 그리고 자세히 알려지길 바랍니다. 우리학회에 도로에 대한 상상력이 넘쳐나서 basic에 충실하고, 전문역량을 추가하여, 외부와 연결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환경, 회원들이 모두 Homo ROAD Sapiens인 환경을 저는 추구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에게 기회를 주어진다면 “2021 한국도로학회 大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저의 기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학회의 상상력이 넘치고 지혜로운 분들과 함께 미래의 “도로”와 미래를 위한 “우리학회”에 대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도로학회에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